**더 많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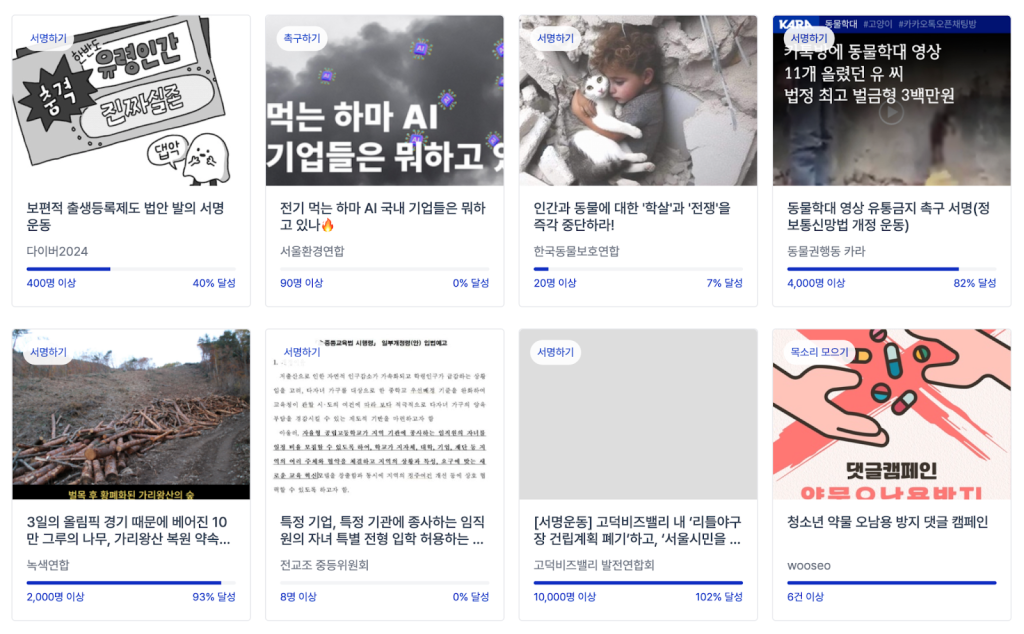
빠띠 권오현

## **대화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의 디지털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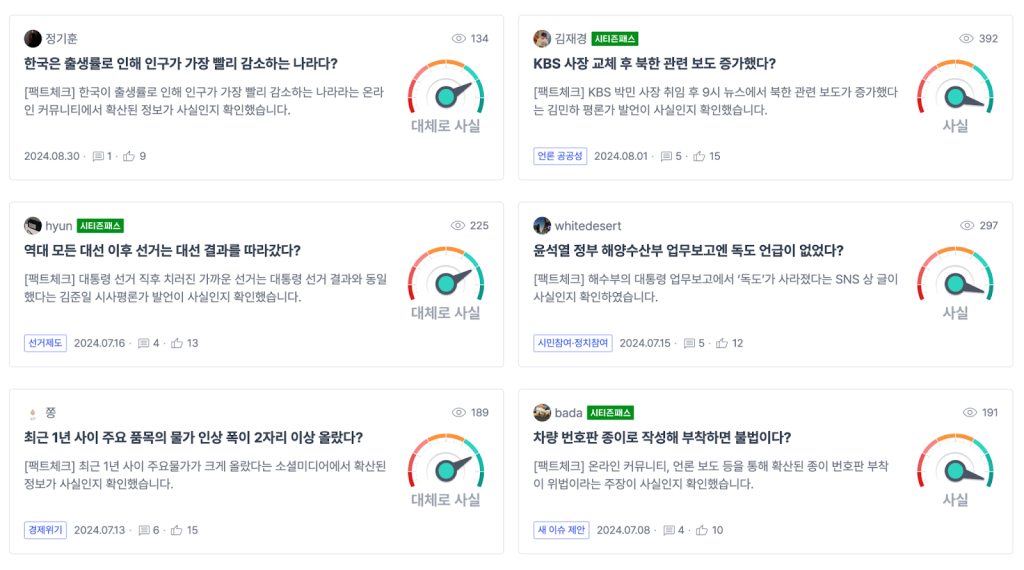
코로나19 초기, 저를 포함한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10여명의 시민 개발자(시빅 해커)들은 온라인으로만 만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큼이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침 마스크 대란의 해결책이 필요했던 정부는 일면식이 없던 시민 개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약국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공개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던 시민 개발자들은 정부와 함께 데이터 공개 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에 마스크 앱 개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루만에 200-300명의 개발자들이 텔레그램 채널 하나에 모여서 함께 3일만에 마스크 앱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었고 중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스크 앱을 개발하기 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으며, 앱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메신저와 문서로만 소통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자신이 가진 기술로 해결하는 시민을 시빅 해커(Civic Hacker) 혹은 시민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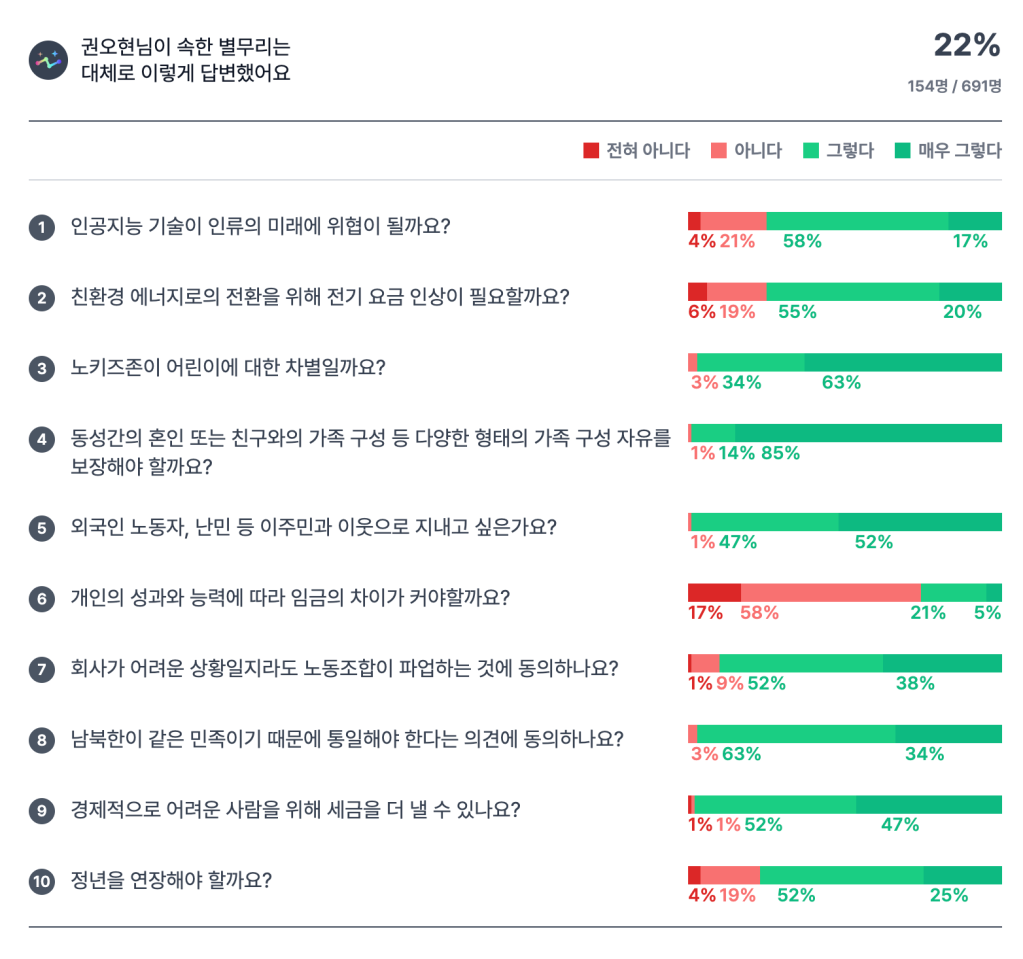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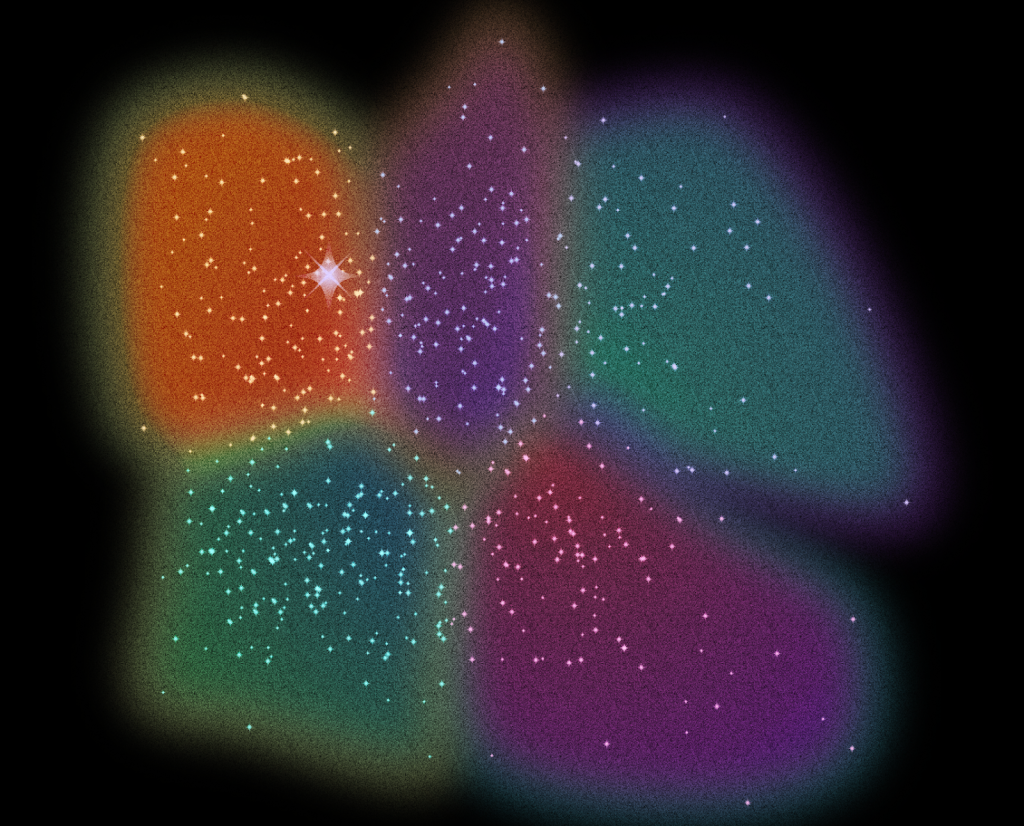
빠띠가 만드는 시민 활동 플랫폼인 빠띠에는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이 올라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이슈부터 정치 개혁 이슈, 동물권 이슈 등 다양한 이슈들은 다른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명, 청원, 목소리 모으기, 지도 만들기 등의 캠페인으로 모입니다. 이 캠페인들은 공개되면 몇천명부터 많게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모읍니다. 2024년 기후 헌법 소원을 통해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불합치](https://campaigns.do/articles/10706)”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청소년기후행동은 5,289명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참여의견서](https://youth4climateaction.org/climate-litigation/?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7236402&t=board)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SPC에서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자 KBO 팬들은 KBO 빵을 불매운동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생산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시민들을 우리는 디지털 캠페이너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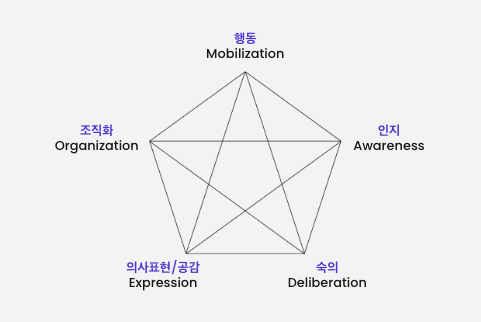
디지털 캠페인은 허위정보를 검증하는데에도 활용됩니다. 시민들은 계엄 당시에도 대선 국면에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주장들을 함께 검증해서 팩트체크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주장,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 물가 인상 폭, 디지털 성범죄, 재난안전문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서로 협력해서 근거를 찾고 검증하는 시민을 우리는 시민 팩트체커라고 부릅니다. 시민 팩트체커를 모으고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빠띠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으로부터 팩트체크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3년부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빠띠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1:1로 만나 대화를 하는 한국의 대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2023년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곤 하는는 10개의 질문을 준비하고, 이에 응답한 700여명의 답변 하나 하나를 별로 만들어 서로의 답변 차이를 거리로 계산해 은하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들 중 신청자 50여명을 모셔서 오프라인에서 1:1로 대화하는 시간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동성간의 혼인에 동의하는 20대 남성이 이에 의문을 가진 60대 여성과 함께 만나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후에, 의견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예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 시기에 이러한 시민 대화의 공간 자체가 소중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대화하는 공간을 만드는 시민들을 우리는 시민 대화 기획자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때로는 온라인에서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이슈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거나 다양한 의견을 접하도록 돕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의견이 제도 개선, 정책이나 사업 제안에 영향을 끼치도록 정리하기도 합니다.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 활동을 정의하고, 이 활동들을 지원하는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디지털 캠페이너, 이슈 크리에이터, 뉴스 코멘터, 시민 팩트체커, 시민회의 기획자, 시민대화 기획자, 시민 패널, 공익 데이터 활동가, 시민 개발자 등등 다양한 활동을 정의하고 확장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더욱 더 연결하고 협력이 일어나도록 시티즌패스라는 멤버십을 만들고, 여기서 멤버들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모임, 협업을 나누며 역량을 키우고 활동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림) 민주주의 혁신 전략 - 누구나,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고 연결하기

## **시민 공간(Civic Space)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연결된 시민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당면한 사회, 경제, 국제, 기후 위기는 연결된 시민의 힘, 즉 시민 권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책임있게 하도록 만드는 힘도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커다란 자본과 기술 독점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 자본과 새로운 기술을 위기 극복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시민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기술이 위기를 가중시키기보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되도록 만드는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민의 권한과 시민의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때 공공성에 기여하도록 만들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 권력은 시민 스스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와 권리를 확장하는 것만큼, 서로 다른 주장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진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으로 시민들 스스로 나아갈때에 우리 사회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면한 사회, 경제, 국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며, 신뢰하고 협력하며,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제는 시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은 권한과 역량, 즉 시민 권/력을 확대함으로써만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 참여, 협력, 자치를 확대하고 시민 역량, 공간, 자산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디지털 미디어**

우리는 당장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민 공간만 고려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의 혐오·차별 확산, 필터버블에 의한 정치적 양극화 심화, 딥페이크와 봇 등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과 여론 조작 시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시민 공간의 위축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더 나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혐오와 차별,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존중받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포용’의 사회, 대화와 숙의로 시민, 전문가, 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사회, 축적한 공동의 경험을 통해 다양성과 협력의 가치를 믿는 ‘신뢰’의 사회, 공동체의 자산을 함께 만들고 공동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호혜’의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디지털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 **기술 민주주의, 그리고 디지털 공공재로서의 플랫폼, 데이터, AI**

디지털 기술은 연결과 개방, 축적과 자동화 를 마법처럼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언제나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연결이 기존의 관계망을 망가뜨렸고, 개방은 정보의 불균형을 가져왔으며, 축적은 새로운 인클로져를, 자동화는 노동을 추방시킬 가능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기존의 사회를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했고, 관심 경제는 사회적 가치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광고, 이윤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민 공간을 망가뜨렸으며, 결과적으로 초거대 기술 자본이 사회의 관계망과 데이터, 막대한 자원과 권한을 독점한채 국가를 넘어 그들끼리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이와 다르고, 디지털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지금 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의 기술은 기존에 고립되었던 소수자들을 결집해 안전감과 힘을 부여했으며 더 다양한 주장과 근거가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축적의 기술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AI로 대표되는 자동화의 기술은 인류가 그 어느 시절에도 도달하지 못한 진정한 해방의 시대를 만들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조금 더 요구하고 나아가야 했고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 연결이 연대를, 개방이 신뢰를, 축적이 공유를, 자동화가 해방을 만들도록 감시하고 항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만 했고 지금부터도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안적인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집단과 개인이 소유에 동참해야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기술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하며, 이 기술을 공동체 스스로 소유하고 운영할 기술 민주주의를 실천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와 협동조합, 커뮤니티가 중요한 디지털 생태계의 일원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와 사회로 대변되는 공동체가 이 기술에 투자하고 육성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시민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미디어 플랫폼 협동조합, 공동체의 데이터를 만들고 운용하는 데이터 협동조합,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술을 만드는 비영리 기술 집단, 더 쉬운 참여와 더 나은 숙의 기술을 운용하고 보급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이 활동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시민 그룹 등 우리는 기술을 공동체의 가치에 기여하도록 만들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